

- 주요 뉴스: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위기감 지속. 문제 해결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
 - 미국 3월 내구재 수주, 예상치 상회. 다만 기업투자 지표는 부진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 ECB는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한 상황
 - 독일 5월 GfK 소비자신뢰, 전월비 상승. 소득증가 기대 등이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퍼스트리퍼블릭 관련 불안 지속되며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4%], 달러화 약세[-0.4%],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은행권 우려에 따른 매도 증가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산업재 위주로 매도 증가하며 0.8%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하반기 경기침체 가능성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6%,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5월 금리인상 전망 등이 배경
 독일은 재무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등으로 1bp 상승
- ※ 원/달러 1M NDF환율(1336.1원, -0.2원) 0.2% 상승, 한국 CDS 상승

주요지수					주요금리				
		4/26일	4/25일	전일대비			4/26일	4/2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56.0	4,071.6	-0.38%	국채금리 10y	미국	3.45%	3.40%	5bp
	유럽	463.21	467.08	-0.83%		독일	2.40%	2.38%	1bp
	중국	3,264.1	3,264.9	-0.02%		영국	3.73%	3.70%	3bp
	일본	28,416	28,620	-0.71%	CDS 5y	한국	47bp	46bp	1bp
	한국	2,484.8	2,489.0	-0.17%		중국	75bp	75bp	0bp
환율	달러지수	101.44	101.86	-0.42%	위험지표	EMBI+	-	428	-
	유로화	1.1041	1.0973	0.62%		VIX	18.84	18.76	0.43%
	엔화	133.67	133.76	0.07%		WTI유	74.30	77.07	-3.59%
	위안화	6.9280	6.9326	0.07%	원자재	구리	385.4	384.8	0.14%
	원화	1,336.3	1,332.2	-0.31%		금	1,989.0	1,997.4	-0.4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위기감 지속. 문제 해결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

- 관계자들에 따르면, 퍼스트리퍼블릭 측은 최근 대규모 자금지원에 나섰던 대형은행들에게 자사가 보유한 대출과 채권 등의 자산 가운데 일부를 시장 가격 이상으로 매입하도록 요청. 특히 파산으로 인한 자산 손실보다 높은 가격에 자산을 인수하는 방안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
-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당국은 퍼스트리퍼블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점차 부정적으로 평가. 이는 퍼스트리퍼블릭이 연준의 할인창구 혹은 여타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
- 또한 정부는 이번 퍼스트리퍼블릭 사태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전반의 불안이 증폭되지는 않고 있어 은행위기 재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이에 시장에서는 당국이 최근 상황에서는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 증가
- 퍼스트리퍼블릭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날 주가 역시 전일에 이어 큰 폭 하락(5.69달러, -29.75%). 전문가들은 퍼스트리퍼블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3월 내구재 수주, 예상치 상회. 다만 기업투자 지표는 부진

- 3월 내구재 수주는 전월비 3.2% 증가하여 예상치(0.7%) 대비 높은 수준. 이는 항공사 Boeing의 수주 급증 등에 기인. 운송부문을 제외할 경우에도 전월비 0.3% 증가. 다만 기업투자 지표로 활용되는 항공부문 제외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0.4% 감소하여 예상치(-0.1%) 하회
- 한편 3월 상품 무역수지는 846억달러 적자를 나타내 전월비 8.1% 감소. 이는 원유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산업재 및 자본재 등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

■ 미국 Meta 1/4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Tesla에 대한 투자의견은 하향 조정

- Meta의 매출과 주당순이익은 286.5억달러, 2.20달러를 기록, 예상치(각각 276.5억달러, 2.03달러) 넘어섰고, 주가도 장외 시장에서 10% 이상 급등. 다만 Tesla 주가는 투자의견 하향 조정(Jefferies) 등으로 하락(153.75달러, -4.3%)

- **미국 서머스 전 재무장관, 정부의 채무불이행 확률은 2~3%. 투자자 불안은 지속**
 - 미국 의회의 부채상한 상향 실패로 인한 정부의 기술적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은 2~3%에 불과. 또한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신속하게 해결 가능. 다만 이날 3개월물 국채금리는 전일비 올라(5.11%, +9bp) 투자자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 ECB는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한 상황**
 - 부이치치 총재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 인플레이션 추세가 바뀔 때까지 금리인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첨언
- **독일 5월 GfK 소비자신뢰, 전월비 상승. 소득증가 기대 등이 반영**
 - 5월 GfK 소비자신뢰는 -25.7을 기록하여 전월(-29.3) 대비 높은 수준. 이번 결과는 에너지 가격 하락 및 소득증가 기대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한편 독일 재무부는 금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0.2%→0.4%). 내년에는 성장률이 1.6%에 이를 것으로 예상. 하백 경제장관은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경제 회복력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평가
- **중국 1/4분기 은행 부실채권 비율, 전기비 하락. 안정적인 은행권 유동성 시사**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1/4분기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1.68%를 기록하여 전기 대비 0.09%p 하락했다고 발표. 이와 관련하여 은행과 보험사의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
- **일본은행 총재, 비용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대응은 어려운 과제**
 - 우에다 총재는 비용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설 경우 경기둔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 아울러 최근 수입 원자재의 가격 안정을 고려 시 일본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27 현지시각 기준)**
 - ECB 파네타 위원 강연, 미국 1/4분기 성장률 및 4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양호한 1/4분기 기업실적, 향후 지속 여부에 대한 경계심 요구 - 블룸버그

(Curb Your Enthusiasm About Earnings Surprises)

- 1/4분기 실적을 발표한 S&P500기업 가운데 예상치 상회 비중이 82%를 기록하여 5년 평균 76%보다 높은 수준.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업실적의 예상치 상회 비율과 실제 주가지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 필요
- 또한 '23년 하반기 또는 '24년 초 경기침체 가능성, 점진적인 실업률 상승 예상, 가계저축의 고갈, 부실 신용의 채무불이행 전환 여부 등 향후 기업실적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 이에 투자자들 역시 향후 기업실적 전망 관련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음을 인식하고 과도한 안도감을 갖지 않는 자세가 중요

■ 퍼스트리퍼블릭 문제의 해결, 자산매각 필요하지만 장애물 존재 - Financial Times

(First Republic's dilemma)

- 퍼스트리퍼블릭의 1/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 높아진 자금 조달 비용을 고려 시 연 13~15억달러 손실 예상. 조달 비용을 낮추거나 수익성을 높이기 어려워 해결 방안으로 저수익 자산 매각 및 고비용 차입 상환 등이 거론
- 그러나 만기보유자산을 매각하면 대차대조표에 미반영되었던 손실(270억달러)이 확정되는 문제 초래. 자본금 규모(180억달러)를 고려하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
- 퍼스트리퍼블릭 문제가 아직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은 상황. 그러나 다른 은행들이 이자율이 5%에 이르는 연준 할인창구 및 BTFP 자금(총 700억달러로 추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권 위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미국 중저소득층의 재정 악화, 소비자신용에 부정적 영향 - Financial Times

(The US consumer . . . wins again?)

- 미국의 견조한 고용시장 불구 최근 중저소득층의 재정 상황은 과거에 비해 악화. 실제로 개인의 월간 저축액은 감소세. 재정 상황이 악화된 중저소득층은 전체 소비자대출 채무의 37%를 차지. 이에 자동차대출 등 소비자신용을 담보로 한 채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소지
- 현재 소비자신용 자산유동화증권시장(ABS)은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고물가고금리 여건으로 중산층은 현금 유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주택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국 성장률과 고용지표, 5월 연준의 금리인상을 뒷받침할 가능성 - 블룸버그

(What to Watch for in This Week's Key US Economic Data Reports)

-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미국 1/4분기 성장률은 1.8%를 기록하고 부문별로는 개인소비지출이 이번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 아울러 성장률과 함께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도 공개되는데, 서비스 가격의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
- 또한 1/4분기 고용비용지수 상승률은 임금 인플레이션의 가늠자로서 중요한데, 해당 지표도 오름세를 보일 전망. 도이체뱅크에 의하면, 해당 지표들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명확하게 반영될 것으로 평가

■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 신중한 접근으로 시장을 안심시킬 필요 - 블룸버그

(Can Ueda Take the Trauma Out of BOJ Watching?)

- 우에다 총재는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현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모습. 이는 구로다 전임 총재 시절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해 형성된 불신 때문
- 우에다 총재는 스스로를 증거에 기반하고 분석적인 사람으로 소개해 왔으며, 너무 이른 정책변경에 따른 위험을 자각하고 있는 만큼 충격요법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시장을 안심시키는 과정이 필요

■ 퍼스트리퍼블릭 주식 매도 증가, 금융당국에 새로운 경고 신호 - Financial Times

(Sharp sell-off in First Republic shares causes alarm in Washing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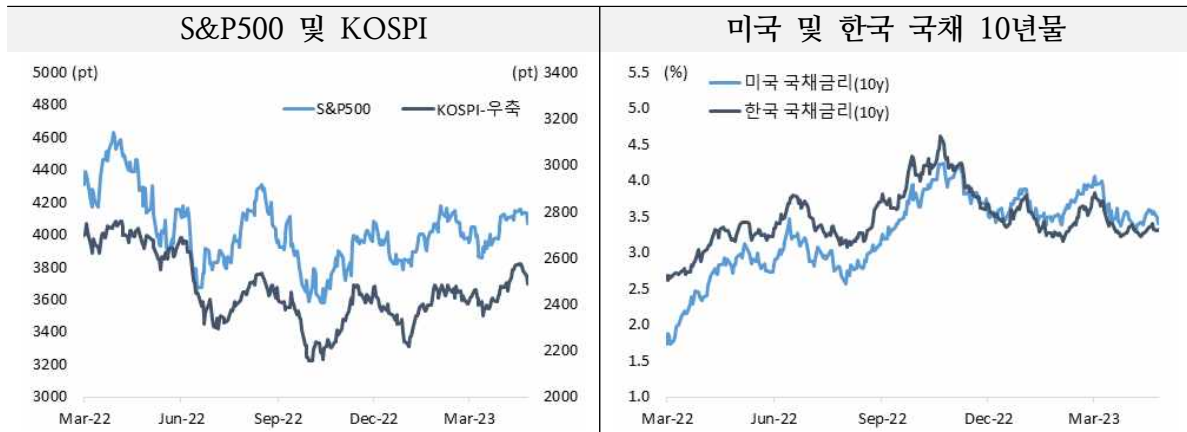
■ 중국 경제, 가계 소득 둔화 및 높은 실업률 등으로 성장 지속은 불확실 - 블룸버그

(China's Consumer Recovery Under Scrutiny as Economy Rebounds)

■ 일본 정재계,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따른 대중국 경제 리스크 우려 확산 - Financial Times

(US-China rift looms over Japanese companie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